

(가번역)

아베내각총리대신 담화
~ 항구적 평화에 대한 다짐 ~

2013년 12월 26일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신 영령에 대해 진심어린 애도와 존숭(尊崇)의 마음을 표하며 영혼이 편히 잠들도록 명복을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돌아가셨으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지 않은 국내 및 외국분들을 위령하는 진영사(鎭靈社)에도 참배하였습니다.

영령께 합장을 하면서 현재 일본의 평화로움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행복을 빌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전쟁터에서 쓰러진 수많은 분들. 그 고귀한 희생 위에 우리의 평화와 번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시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가지고 참배하였습니다.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저는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 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영령 앞에서 앞으로도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해갈 결의를 새로이 하고 왔습니다.

동시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아의 번, 세계의 번과 함께 전세계의 평화 실현을 생각하는 나라여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일본은 전후 68년에 걸쳐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 오로지 평화의 길로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세를 관철해 가겠다는데 한 점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국제협조하에 향후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정치문제, 외교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전범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베정권이 출범한 바로 이날 참배를 한 것은 영령들께 정권 일년의 발자취와 전쟁의 참화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과 한국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역대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며, 중국과 한국에 대해 경의를 가지고 우호 관계를 구축해가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